

# 카드사 통장 나오나... 당국, 비은행 종지업 규제 완화 촉각

(종합지급결제업)

업계, 종지업 라이선스 취득엔 독자적인 계좌 발급 가능해져 포인트 등 리워드 서비스 강화 및 활성 사용자 확보에도 도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을 막기 위해 비은행 금융사에게 종합지급결제업 허가 방안을 시사했다. /뉴시스

카드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활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등장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출금 계좌개설이 가능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 통장', '롯데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가 등장할 것이라 관측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에 종지업 라이선스 허가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

다는 분석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종지업 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면 지급 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은행은 비대면 지급결제 시장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핀테크 기업을 통한 결제 비중은

66.8%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종지업 도입은 카드사의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핵심이다. 핀테크사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통장 개설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 1분기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한 5~6년 만에 카드사의 입지를 위협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할 필요가 사라진다. 계좌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대금결제는 물론 급여이체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금융지주 계열사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한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라이선스는 계좌 개설권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다"며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신사업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본격적인 플랫폼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자금이체 등 생활 영역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카드혜택은 물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 이른바 '락인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가 종지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계좌개설권이 생기더라도 여신 전문금융사인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다. 대신 자사 통장

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인식 개선을 노릴 수 있다. 핀테크사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편의성 강화를 통해 상표 가치를 높인 만큼 카드사를 또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

이번 논의에 카드업계는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지업 도입을 철회하면서 숙원과제가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종지업 허가 승인이 난다면 플랫폼 강화는 물론 월 활성 사용자(MAU)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주총 앞둔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같이'

당국 지배구조 칼날 속 재편 가속도 신한·우리금융 사외이사 규모 축소 KB, 임기끝난 6명 중 3명 신규추천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4일 KB금융, 우리금융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과 NH금융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3월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입법예고를 목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를 명문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도 경영진의 감시

와 조연의 역할을 특독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가장 6년(KB금융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했다. 전문성있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올 초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자진해서 사퇴한 뒤 11명이 있었다. 이 중 10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박안순 일본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 전략대표사가 사임하면서 8명의 재선임 안건만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은 86%에서 82%로 감소했다.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규모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윤수영 키움자산운용대표 등 2명을 임기 2년의 선임 사외이사

로 추천했다. 정찬형 이사는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앞서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6월 불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한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추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주주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이달 완료된다. 다만 이들은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없어 최대 임기제한에 걸리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다.

NH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NH농협금융의 경우 이석준 회장이 지난 1월부터 취임에 교체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유리 기자 yul115@

## 환절기 '독감·호흡기 질환 치료' 특약 올바른 이륜차보험 정착 문화 캠페인

###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가 환절기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을 강화한다.

◆ 독감부터 창상,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한 번에

삼성화재는 독감 확산이 늘어나는 3월을 맞아 '마이헬스 파트너'와 '마이슈퍼스타'에 독감치료비와 호흡기 질환 담보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독감 월별 진료환자'에 따르면 3~4월 독감 환자수는 각각 19만6000명, 52만7000명으로 겨울철인 12월 및 1월 다음으로 높다.

'독감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진단 1회당 최대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초 처방 60일 후에는 재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와 함께 독감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호흡기 전염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독감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특약은 봄철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특정 바이러스성 폐렴, 특정 세균성 폐렴을 비롯해 약관상 규정하는 7대 호흡계질환 진단 시



DB손해보험이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한다. /DB손해보험

최초 1회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 정확한 보험 가입 강조...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DB손해보험은 바이크뱅크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 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가입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험 가입 식별 스티커를 보급한다. 보험기간 및 차량번호를 함께 기재해 실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다른 차량에 무단 부착할 소지도 방지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 휴대폰 이용 '내구제대출' 주의하세요

### 금감원 Q&A

Q. SNS 광고에서 '폰테크',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등 핸드폰 대출 광고를 봤는데, 합법적인 금융상품이 맞나요?

A.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매개로 한 재화거래로서,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상품

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불법업자에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는 수십배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대포폰(선불유심 포함) 제 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상담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셋째,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023년 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가계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부담 완화

NH농협銀, 0.3%p 우대금리 적용

NH농협은행이 가계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은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에 일괄 우대금리를 적용해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담보대출 우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했다.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 0.6%p, 변동 1.1%p 인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고정 1.1%p, 변동 0.3%p 인하하는 등 3개월 간 잇따른 금리 인하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된 취약차주 및 주택담보·전세대출 고객에 더해 가계 신용대출 및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